

시론

시민의 잡지를 생각한다

최상천

2002년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종이매체는 영상매체와 인터넷에 밀려서 여론주도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구독률 70%를 차지하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이 결사적으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다지만, 결과는 노풍(노무현 바람)이 조중동의 희망을 날려버렸다. 신문보다는 텔레비전의 영향이 훨씬 컸고, 결정적 국면에서는 인터넷이 압도적 위력을 발휘한 결과다.

종이매체의 쇠퇴는 신문보다 잡지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신문은 영향력을 많이 잃어도 발행부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잡지들은 요 몇 년 사이에 태풍이 쓸고 간 사과밭 꼴이 되어버렸다. 한 시기 한국 지성을 상징하던 『창작과비평』조차 맥을 못 쓰고 있다. 만 부 이상 나가던 계간지들이 몇 백 부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자. 종이매체의 쇠락은 진보 성향을 가진 매체일 수록 더 심각하다. 한겨레신문도 아주 어렵고, 진보 성향의 잡지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명맥이어가기도 힘들다. 대부분 진보 잡지가 대중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거의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동인지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이내에 진보적 인쇄매체는 거의 사라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언론시장, 문화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걸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 의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어설픈 진단과 처방은 금물이다.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성찰과 반성의 눈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자면 진보 매체가 지식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고 진보진영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진보 이념'이 혹시 낡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진보 의제'가 혹시 보통사람들과는 무관한 당신들만의 관심사항은 아닌가? 아니,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독자와 통하는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글이 너무 어렵다. 전문 학술지 글만 그런 게 아니다. 주간지, 월간지도 어렵고, 신문도 어려운 편이다. 글만 어려운 게 아니다. 텔레비전도 어렵다. 나의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 알아듣기도 어렵다면서, “텔레비가 멀쩡한 사람 귀머거리 만드는 기라!”라며 한탄하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순수 우리말,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어들은 별로 쓰지 않는다. 어려운 한자 단어나 영어 단어를 쓰는 게 버릇이 되어 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꼭 콘텐츠, 컨셉, 퍼포먼스, 클라이언트, 아젠다, 테스크 포스 팀 파워 영어를 쓴다. 이런 영어를 써야 엘리트 신분이 되는 걸까?

어법도 일상 어법과는 거리가 멀다. 웬만큼 머리를 굴려서는 알아먹기조차 어렵다. 한국어 어법과는 거리가 먼 번역문장이 넘쳐난다. 나처럼 읽기와 쓰기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도 책 한 권 읽기가 에베레스트 등정만큼이나 힘들다.

지식인들이 설정하는 주제도 보통사람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고, 왜 이렇게 사는지, 어떻게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무엇이고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분열과 대결을 넘어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진보적 문제의식과 문제제기의 핵심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한국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은 실사구시여야 하고, 목적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향상이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현실을 심판하는 신학적 방법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혁신이 없으면 도태된다. 종이매체는 더욱 그렇다. 종이매체는 정보력, 신속성, 접근성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상대가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방적 매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텔레비전은 시청자의 리모콘 공세

를 벗어날 수 없다. 인터넷은 정보제공자와 네티즌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쌍방향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종이매체의 일방성을 줄이거나 상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놓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기억과 전망』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시민적 글쓰기와 시민적 주제 선정, 시민 참여를 통해서 보통사람들이 읽기에 무리가 없는 『기억과 전망』으로 만들려고 한다. 필자들에게도 가능하면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적 글쓰기를 요청할 작정이다. 시민적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심층 여론조사도 할 생각이다.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바란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논의의 중심점이 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드러내고, 현재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미래의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위해 탐구하는 것을 『기억과 전망』의 자기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성격에 맞게 50%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 방향은 단순한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적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첫 시도로 이번 호에서는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라는 주제를 잡았다. 1980년의 광주를 재해석하면서 동시에 2005년에 5·18이 가지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주제는 30%로 잡고 있다. 이번 호에는 “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가?”라는 주제를 잡았다. 의사당에서, 거리에서, 언론에서 싸우고 있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논쟁의 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폭력과 욕설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합리적 문제해결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의도다.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는 20%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이번 호에는 두 주제를 다루었다. 새로운 기업과 경제체제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유한김벌리를 다루었고, 교육 대안으로 최상천이 제시하는 「손잡고 홀로서기」 1편을 실었다.

우리는 '시민의 잡지' 라는 대중성과 '한국 민주주의 담론 구심점' 이라는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한다. 아마도 앞으로 1년이 그 실험기간이 될 것 같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고 설레기만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바란다. ~~준~~